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부활과 생명의 주인 성경: 요한복음 11장 40-52절

Tag: 적극적,긍정적 태도, *positive attitude*, 부활, 생명,요한복음,신약성경

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5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46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9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이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요11:40-52)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합시다.

잘되고 있으며, 더 잘 될 것이며, 복되고 복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담대하고 인내하고 기도하자.

물론 우리의 인생여정에는 가끔 실수라는 이름의 역에 머물 수 있다. 실수라는 역 앞 거리에는 낙심이라는 이름의 카페도 있고, 원망이라는 이름의 술집도 있고, 핑계와 합리화라는 이름의 옷집도 있다. 그 옷집에서 철면피라는 브랜드의 옷을 사 입으면서 편리함을 만끽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역은 지나치는 것이 훨씬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머물었다면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 역에 기왕 내렸으니 내린김에 맘껏 부르짖고 욕하고 울분을 쏟아내고 가면 후련하다고 속인다. 그러나 실수라는 역의 바로 앞에는 교회가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바로 승차하는 것이 낫다. 회개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회개가 철저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다람쥐 인생이 된다는 점이다. (김명민의 하루.)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도 오셔서 인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셨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났다. 병자들의 병이 나았다. 귀신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의 귀신이 쫓겨갔다. 기적이 일어났다.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무지한 자들이 깨우치기 시작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바다 위를 걷기도 하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 부활 사건이 압권이다.(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은 따지고 보면 인류가 항상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진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양심은 해방되었고, 압제자 교황은 세력을 잃었으며, 교황의 줄개들이었던 폭군들은 그 힘을 잃었다. 자유 시장이 활성화 되고, 기술이 발달하였고, 자본이 쌓이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제 인류의 소망은 폭발적으로 성취되어갔으며 지금도 여전히 혁명은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더 놀랍고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인류는 이것을 과학과 문명을 통해서 이룩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종교개혁의 산물을 물려받은 나라에서 주로 이런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다.

TV혁명도 불과 1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늘상 해 오던 기술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신비한 TV를 경험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TV를 통해서 회심하였다. HD-→UHD-→OLED HD.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화면을 펼치신다. 그러니 얼마나 편리한가?

별써 유전자 조작 키트가 나왔다.(유전자 치료제도 나옴, 유전자제조 합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세포치료제(면역세포 치료제), DNA백신 등) <좀비영화가 이 문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공상영화. 나는 이 좀비영화가 부활을 악하게 패러디 하기 때문에 싫어한다.>

20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
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사65:20)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자도 살리신다. 말로 병을 고치신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

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려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신앙의 바운더리를 위함, 기독교 신앙적 바운더리가 가장 중요함.)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론을 쏟아 냈다. 식량고갈, 석유고갈, 인구폭발, 지구온난화, 핵문제와 인류의 멸망. 그래서 태양광, 풍력, 수력, bio 연료 등 말이 많지만, 비용문제와 비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많고, 오히려 환경을 더 크게 해친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여전히 추운 곳이 많고, 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만큼 땅이 솟아난다. (정말로 지구가 따뜻해지면 난방비 줄고 좋지 않나? 북극곰이 그렇게 중요하나?)

석유는 미국에서만 200년 사용할 수 있는 세일가스/오일이 묻혀있다고 최근 보도되고 있으며,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세일가스/오일이 있는데(과장됨?) 물과 기술이 없어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진문제, 단층구조도 복잡, 생산단가가 현재로서 높음, 어찌 중국은 하는 일마다 막히고 망하는가?) 아마 100년도 가기 전에 수소발전소가 생길 것 같다. 인류는 아직도 석탄 다 쓰지 못하고 있는데, 석유도 꺾 값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성경에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비관론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 우상숭배자들, 죄와 악한 문화에 빠져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들일 뿐이다.

성경에는 낙관론도 많은데 전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들에 관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잘될 것이다. 앞으로의 의학계는 생명공학에 집중될 것이다. 우수한 유전인자를 발굴하고 편집 유전인자를 이용해서 그 약을 복용하면 그 유전 인자는 자신이 편집해야 할 유전자를 편집한다.

대부분의 질병은 정복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적이다. 유전 인자는 정보 코드이고 언어와 비슷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약은 먹음으로 치료 되듯이, 말씀은 믿음으로 치료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뇌에서는 그 치유의 유전인자를 만들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메카니즘을 지녔다고 상상할 수 있다.

어차피 내가 나인 이유는 나만의 DNA 때문이 아니라,(현재 여기서는 그럴수도 있지만, 특히 형법상) 나의 영혼이 나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우리는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을 입는다. 그때의 DNA는 현재의 복사본이 아닐 것이다.)

여전히 사람의 기술은 하나님의 기술에 한참 못미친다. 왜냐면 하나님이 곧 DNA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부활 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그것은 결코 과학의 힘은 아니다. 최고 우수한 DNA가 천년을 산들, DNA는 DNA일 뿐, 그가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며, 영생하도록 조작될 수는 없다.

오직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행복과 불행의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있다. 그 지도에는 확연히 행복과 불행의 영역이 지도에 구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행복으로 가득한 지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틀림 없다.

오늘날 우리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는 네비게이션도 만들 수 있다. 내가 지금 처한 곳이 절망이라는 이름의 도시여도 상관없다. 부끄러움이라는 이름의 동네여도 상관없다. 낙심이어도 상관없으며, 질병이라는 거리여도 상관없다. 자존심이라는 신발을 벗고, 회개라는 신발을 신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신세한탄이라는 집을 나와서 소망과 기도라는 자동차를 타자. 그리고 사랑의 거리로 접어들자. 희생의 골짜기를 지나서 섬김의 능선을 넘어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샘물을 곳곳에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행복의 도시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